



#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10  
(2019.07.27)

## Sejong Policy Brief

###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아베의 성적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 차례

#### 핵심요약

- I. 투표 결과
- II. 선거의 쟁점
- III. 헌법 개정의 가능성?
- IV. 아베 총리의 지속: 레임덕의 방지
- V. 향후 정국의 동향
- VI. 한국의 대응 방향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핵심 요약]

- 일본정치에서의 참의원 선거의 의미
  -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당(자민당 + 공명당)이 안정적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지속.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21일 참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헌법 개정 추진이 가능한 2/3 의석에는 미치지 못하여 헌법 개정은 어려워짐.
  - 자민당의 참의원에서 단독과반수 미달하여 공명당의 역할이 커짐.
  -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57석을 얻었음. 비개선을 포함하더라도 참의원 세력은 정수 245석 중에 113 의석으로 3년 만에 단독과반수에 123 의석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음.
  
-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언론 일부에서는 아베가 헌법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원을 끌어들이더라도 개헌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베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추진에 열의를 가진다면, 9조를 포기하면서 헌법 개정의 길을 택할 수는 있음.
  
- 향후 정국의 전망
  - 아베는 중의원 선거라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임. 아베는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음.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기보다는 대체로 내년 올림픽 이후 아베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달려있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후에 아베가 사임하거나 중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사임 가능성은 있음.
  
-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아베가 한일관계를 개선 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없음.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공세는 준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우선 8월로 예정된 화이트 국가 리스트의 삭제는 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토대로 한국을 더욱더 압박할 것임. 그 이후에는 징용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항 조치를 예고하고 있음.

# 1. 투표 결과

○ 21일 참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헌법 개정 추진이 가능한 2/3 의석에는 미치지 못 하였음. 일본의 국민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아베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으나, 야당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베 정권의 지속에 표를 던진 것임.

○ 그림1: 2019년 참의원 선거 결과<sup>1)</sup>



○ 표1: 2019년 참의원 선거 결과 (개선의석 124석)<sup>2)</sup>

당파	비례대표		선거구		합계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자유민주당 (자민당)	35.4%	19	39.94%	38	57
공명당	13.1%	7	7.54%	7	14
입헌민주당	15.8%	8	25.14%	9	17
일본유신회	9.8%	5	-	5	10
일본공산당	9.0%	4	7.26%	3	7
국민민주당	7.0%	3	5.84%	3	6
레이와 신센구미	4.6%	2	-	-	2
사회민주당	2.1%	1	0.51%	0	1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2.0%	1	0.95%	0	1
안락사 제도를 생각하는 모임	0.5%	0	0.11%	0	0
행복실현당	0.4%	0	0.15%	0	0

1) 출처: 日本經濟新聞, 参院選2019データ分析,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sanin2019-analysis>

2) 출처: 総務省の選挙関連資料 “第24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結果調”.

올리브 나무	0.3%	0	1.70%	0	0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당	0.2%	0	0.23%	0	0
일본 무당파당	-	-	0.39%	0	0
무소속	-	-	10.15%	9	9
	100.00%	50	100.00%	74	124

- 지금까지의 의석수는 242석이었는데 이번에 6의석이 증가하여 정수는 248석이 되었음. 이번에는 6의석 가운데 3의석이 증가하여 개선의석은 124의석이 되었음. 참의원 수는 121 + 124 = 245의석임.
  - 이중 과반수는 123의석, 2/3는 164석임.
  -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63석 이상이면 여당개선 과반수를 넘음.
  - 자민당이 단독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67석이 되어야 하며, 비개선 56 + 개선 67 = 123석이 되어야 함.
  - 자민당 + 공명당 + 유신의 당이 85석 이상이면 개헌 세력 2/3를 넘음.
  
-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57석을 얻었음. 비개선을 포함하더라도 참의원세력은 정수 245석 중, 113의석으로 3년 만에 단독 과반수에 123의석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음. 개선 전에는 정수 242의석 중 122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9석을 잃어버렸음. 그러나 자민당은 제2차 아베내각이 발족한 직후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65의석을 가졌음. 이번에는 그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을 하였음.
  
-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지속됨. 참의원선거전에도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쳐 과반을 넘으면 성공으로 보았음. 이 점에서 공명당과 합쳐 141의석이 된 것은 자민당으로서는 공명당이 없으면, 여당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이 점에서 공명당은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음.

○ 표2: 연도별 자민당 및 공명당의 참의원 의석수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자민당	37	51	65	55
공명당	9	9	11	14
합계	46	60	76	69

○ 표3: 2016년 참의원 선거 결과 (7월 10일) (개선 의석 121석)<sup>3)</sup>

당파	비례대표		선거구		합계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자유민주당 (자민당)	35.91%	19	39.94%	37	55
민진당	20.98%	11	25.14%	21	32
공명당	13.52%	7	7.54%	7	14
오사카유신회	9.20%	4	5.84%	3	7
일본공산당	10.74%	5	7.26%	1	6
사회민주당	2.74%	1	0.51%	0	1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타로와 친구들	1.91%	1	-	-	1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1.31%	0	0.95%	0	0
신당개혁	1.04%	0	0.11%	0	0
국민분노의 목소리	0.83%	0	0.15%	0	0
행복현실당	0.65%	0	1.70%	0	0
지지정당 없음	1.16%	0	0.23%	0	0
감세일본	-	-	0.39%	0	0
세계경제공동체당	-	-	0.01%	0	0
유신정당·신평	-	-	0.08%	0	0
첼린지드 일본	-	-	0.01%	0	0
지구평화당	-	-	0.01%	0	0
이누마루 카츠코와 공화당	-	-	0.01%	0	0
무소속	-	-	10.15%	4	4
	100.00%	48	100.00%	73	121

○ 입헌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자민당 정권을 위협하지 못함. 야당 제1당의 입헌민주당은 참의원에서 도시지역에서 많은 표를 받지 못함. 중시했던 2이상의 복합구에서는 후보의 40% 정도가 낙선하였음. 기대했던 무당파층의 획득에는 실패하였으나, 개선 9의석에서 180% 증가한 17의석을 얻어, 비개선을 포함하면 32의석을 갖게 되었음. 참의원에서 야당 제1당의 지위를 가지게 됨.

## 가. 비례표의 동향

- 공명당 조직표의 약화: 공명당의 위기감
  - 비례표의 동향을 보면 자민당의 득표수는 1771만 표로 2016보다 240만 표의 감소, 2016년에는 2011만 표였음. 공명당은 653표에서 전회 757만 표보다 100만 표정도 감소했음. 득표수가 600만 표 대가 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일로, 득소의석수는 전회와 동일한 7석이었음.

3) 출처: NHK 参院選 2019,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2019/?utm\\_int=detail\\_contents\\_news-link\\_001](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2019/?utm_int=detail_contents_news-link_001), NHK NEWS WEB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722/k10012002671000.html>

○ 입헌민주당은 791만 표, 국민민주당은 349만 표로 양당의 합계는 1139만 표로, 민진당이었던 2016년 선거의 1175만 표에 육박함. 득표율은 2016년 민진당 당시의 20.98%에서 22.76%로 상승했음.

○ 유신의당은 490만 표였음. 전회의 511만 표보다는 적었지만, 획표의식은 5의석으로 1석이 많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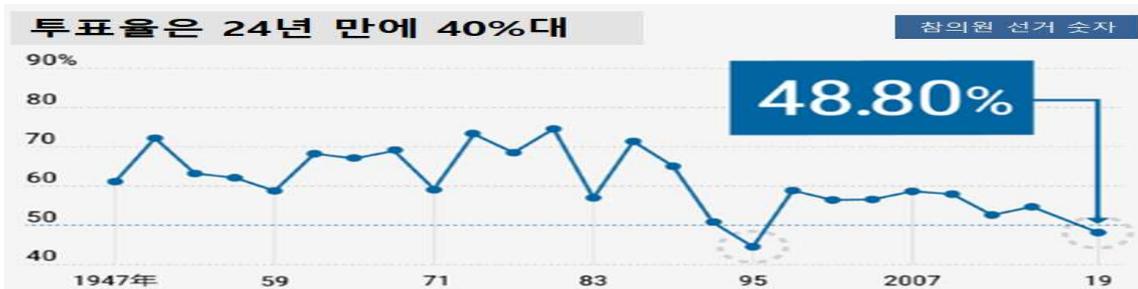
○ 그림2: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sup>4)</sup>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							
정당 이름	득표 총 수	득표율(%)	정당 이름	구성비(%)	개인 이름	구성비(%)	
自 民 党	17,711,862	(35.37)	立 憲 民 主 党	12,712,515	(71.69)	5,018,774	(28.30)
立 憲 民 主 党	7,917,719	(15.81)	公 明 党	6,697,707	(84.59)	1,220,012	(15.40)
公 明 党	6,536,336	(13.05)	日 本 維 新 の 会	4,283,918	(65.54)	2,252,418	(34.45)
日 本 維 新 の 会	4,907,844	(9.80)	共 産 党	4,218,454	(85.95)	689,390	(14.04)
共 産 党	4,483,411	(8.95)	国 民 民 主 党	4,051,700	(90.37)	431,711	(9.62)
国 民 民 主 党	3,481,053	(6.95)	れ い わ 新 選 組	2,174,706	(62.47)	1,306,347	(37.52)
れ い わ 新 選 組	2,280,764	(4.55)	社 民 党	1,226,413	(53.55)	1,063,699	(46.44)
社 民 党	1,046,011	(2.08)	N 国 党	761,207	(72.77)	284,804	(27.22)
N 国 党	987,885	(1.97)	安 楽 死 会	841,224	(85.15)	146,661	(14.84)
安 楽 死 会	269,051	(0.53)	幸 福 実 現 党	233,441	(86.76)	35,610	(13.23)
幸 福 実 現 党	202,278	(0.40)	オ リ ー プ の 木	158,954	(78.58)	43,324	(21.41)
オ リ ー プ の 木	167,897	(0.33)	劳 働 者 党	136,873	(81.52)	31,024	(18.47)
劳 働 者 党	80,055	(0.15)		57,892	(67.09)	28,380	(32.89)

## 나. 낮은 투표율

○ 이번 선거에서 아베정권이 변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관한 관심이 낮았음. 그 결과는 48%의 낮은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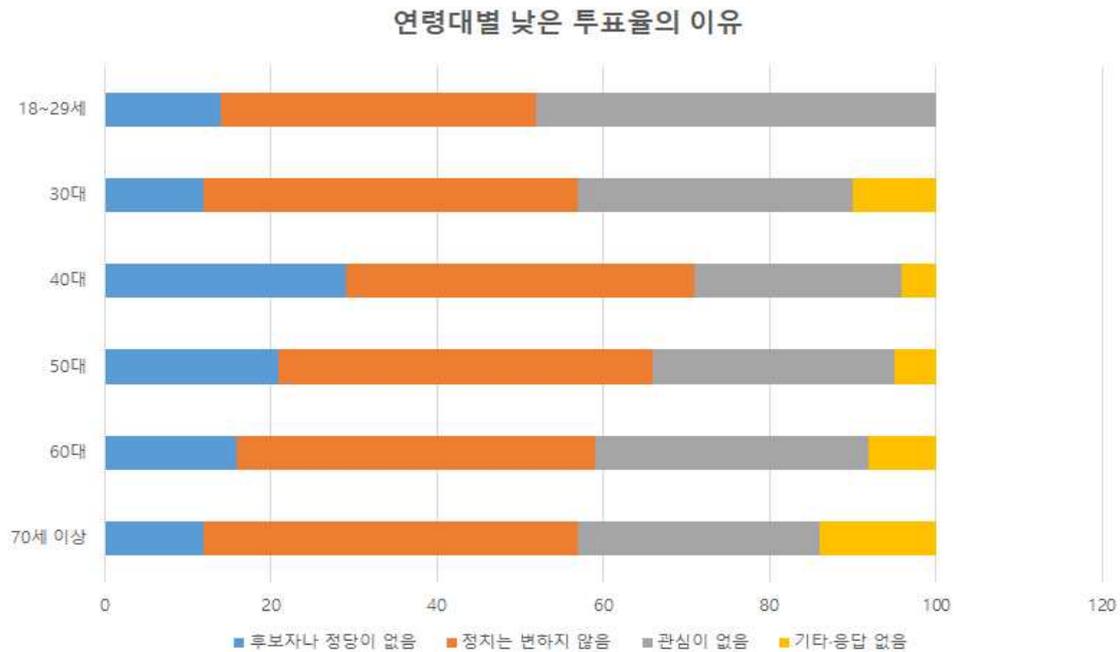
○ 표4: 득표율<sup>5)</sup>



4) 출처: 朝日新聞 2019년 07월 23일

5) 출처: 日本經濟新聞, 参院選ライブ, <https://vdata.nikkei.com/election/2019/sanin/live/>

○ 표5: 연령대별 낮은 투표율의 이유<sup>6)</sup>



○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8.80%로, 과거 2번째로 낮음. 아사히신문사가 22일, 23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전화)에서, 그 이유를 묻자, 「투표해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 43%, 「정치에 관심 없다」가 32%,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나 정당이 없다」 17%였음.

○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회답한 사람의 이유로는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49%, 「관심이 없다」 24%, 「후보자나 정당이 없다」 20%였음.

#### 다. 1인구의 행방

○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좌우하는 것은 1인구에서의 의석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지난 선거보다 1석 증가하여 22석에서 승리하였음. 야당 4당은 2016년에 이어 후보자 단일화하여, 2016년 선거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옴.

6) 출처: 朝日新聞, 「「政治変わらぬ」最多43%・参院選、低投票率の理由・朝日新聞社世論調査」,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6%94%BF%E6%B2%BB%E5%A4%89&FormRadioSelect=&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inf=&sup=&page=1&idx=1&s\\_idx=1&kijid=A1001120190724M003-14-005&version=2019072402](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6%94%BF%E6%B2%BB%E5%A4%89&FormRadioSelect=&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inf=&sup=&page=1&idx=1&s_idx=1&kijid=A1001120190724M003-14-005&version=2019072402)

○ 그림3: 2019년 참의원선거의 개선 수7)

### 2019년 참의원선거의 개선 수



○ 자민당은 1인구에서 22승 10패를 하였음. 자민당을 2016년 선거에서 동북 6개 선거구에서 아키타를 제외한 5개 지역에서 패배하였음. 이번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응원에 힘입어, 2승 4패로 끝남. 아오모리와 후쿠시마에서 의석을 획득하였음. 2013년에는 31의석 중 29석을 이겼음. 따라서 이번 자민당이 패배한 곳은 10곳으로, 현역 7명이나 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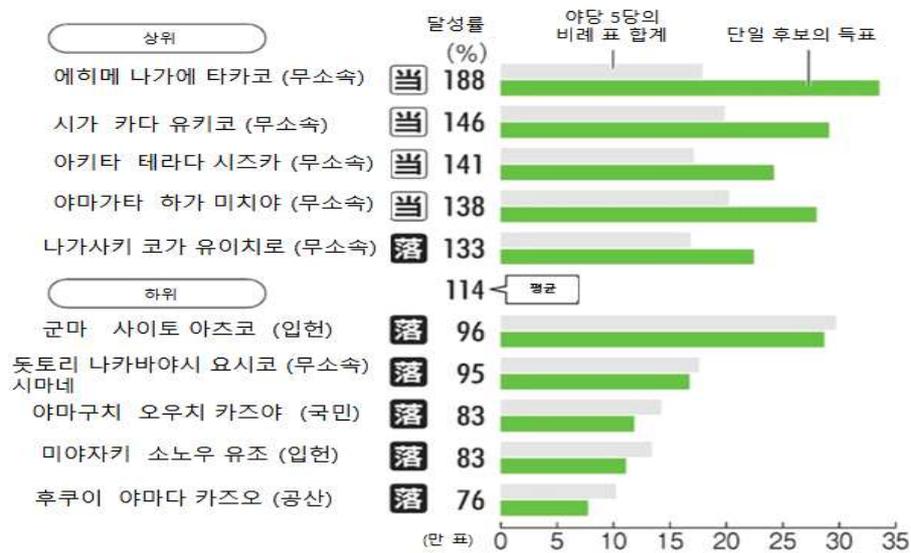
○ 표7: 1인구의 자민당의 승패<sup>9)</sup>

選挙区	07年	10年	13年	16年	2019年
青森	×	○	○	×	○
岩手	×	×	×	×	×
宮城	当時は2人区			×	×
秋田	×	○	○	○	×
山形	×	○	○	×	×
福島	2人区		○	×	○
栃木	×	○	○	○	○
群馬	○	○	○	○	○
新潟	2人区			×	×
富山	×	○	○	○	○
石川	×	○	○	○	○
福井	○	○	○	○	○
山梨	×	×	○	×	○
長野	2人区			×	×
岐阜	2人区		○	○	○
三重	×	×	○	×	○
滋賀	×	×	○	○	×
奈良	×	×	○	○	○
和歌山	○	○	○	○	○
鳥取	×	○	○	○	○
島根	×	○	○	○	○
岡山	×	×	○	○	○
山口	○	○	○	○	○
徳島	×	○	○	○	○
高知	×	×	○	○	○
香川	×	○	○	○	○
愛媛	×	○	○	○	×
佐賀	×	○	○	○	○
西崎	×	○	○	○	○
熊本	×	○	○	○	○
大分	○	×	○	×	×
宮崎	×	○	○	○	○
鹿児島	○	○	○	○	○
沖縄	×	○	×	×	×
<b>1人区計</b>	<b>29</b>	<b>29</b>	<b>31</b>	<b>32</b>	<b>32</b>
<b>自民勝敗</b>	<b>6勝 23敗</b>	<b>21勝 8敗</b>	<b>29勝 2敗</b>	<b>21勝 11敗</b>	<b>22勝 10敗</b>

9) 출처: 日本經濟新聞, 自民, 1人区22勝10敗東北再び負け越し,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47604780S9A720C1PE2000/>

○ 32개의 1인구에서 야당이 공동으로 투쟁한 입헌, 국민, 공산 사민의 각 당에다 단일 후보의 일부를 지원한 레이와 신센구미의 비례 구에서의 득표를 합계하면, 실제 후보의 득표수와 비교한 "공동 투쟁 달성률"이 산출됨. 추산 결과 32개 선거구의 평균 달성률은 114%로, 공동 투쟁에 의한 추가 효과는 14%임. 달성률이 100%를 넘은 선거구는 32선거구 중, 26였음. 단일 후보로 당선된 10곳은 모두 100%를 넘었으며, 이들 선거구에서의 평균은 127%였음.

○ 그림4: 야당 단일 후보의 공동투쟁 달성률<sup>10)</sup>



○ 그림5: 야당 공동투쟁의 지역별 그래프<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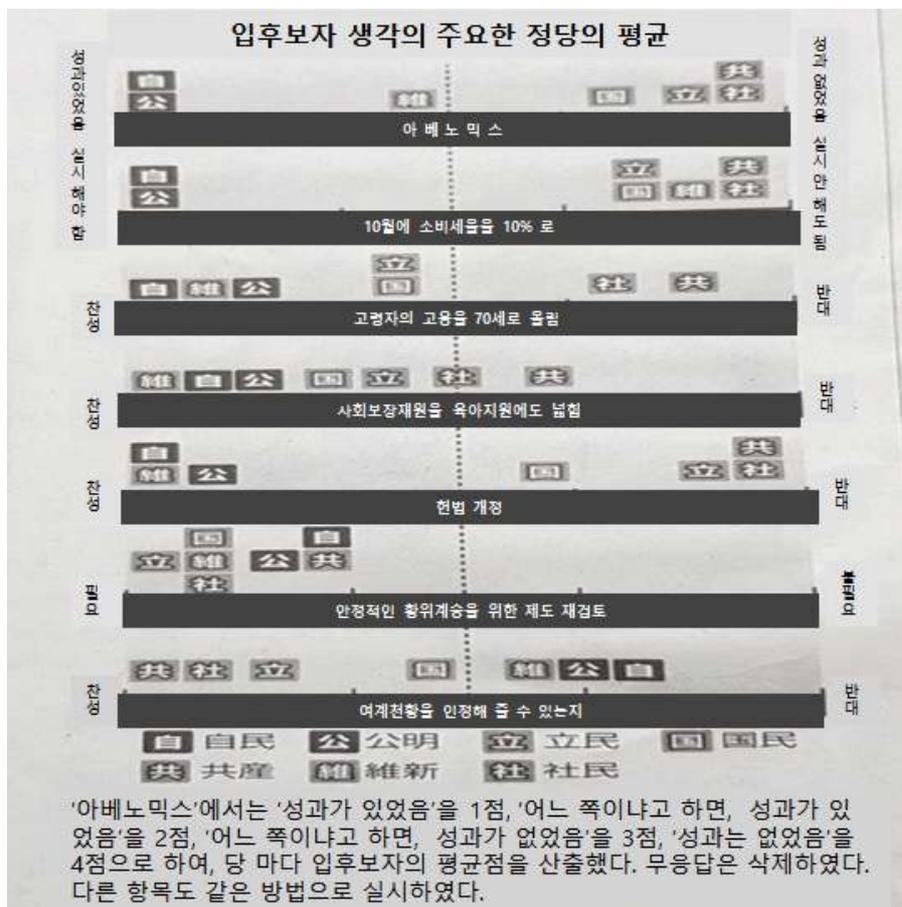


10) 출처: 朝日新聞, 野党共闘効果、票数1.14倍32の1人区、候補者票と比例票を比較・参院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110397.html>

11) 출처: 日本經濟新聞, 参院選2019データ分析,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sanin2019-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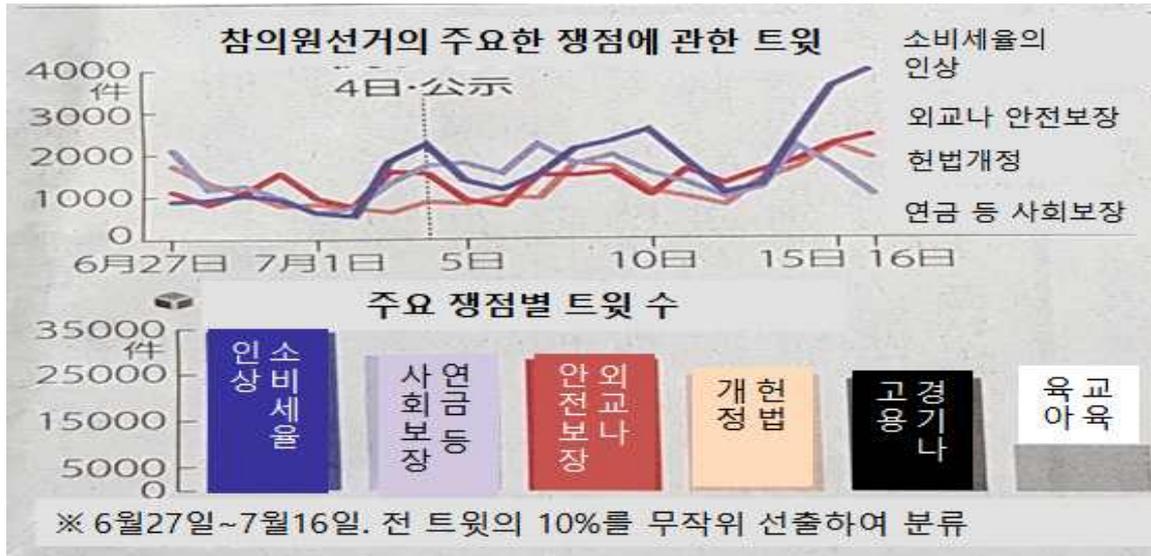
## 2. 선거의 쟁점

- 한국에는 한일관계를 참의원 선거에서 이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선거에는 한일관계가 쟁점이 되지 않았음. 아베가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여, 연금, 소비세 등의 선거 쟁점에 묻혀버린 것이 사실임. 아베의 한국 비난은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있었으나, 이러한 점이 자민당의 표로 집적적으로 연관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이번 참의원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없이 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야당은 연금이나 소비세의 증세를 반대로 아베에 대한 비판 표를 모으려고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함. 그림 7. 8을 보더라도 쟁점이 산발되어, 자민당의 헌법 개정이나 야당의 소비세 증세 반대와 연금문제의 제기가 국민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음.
- 그림6: 입후보자 생각의 주요한 정당의 평균<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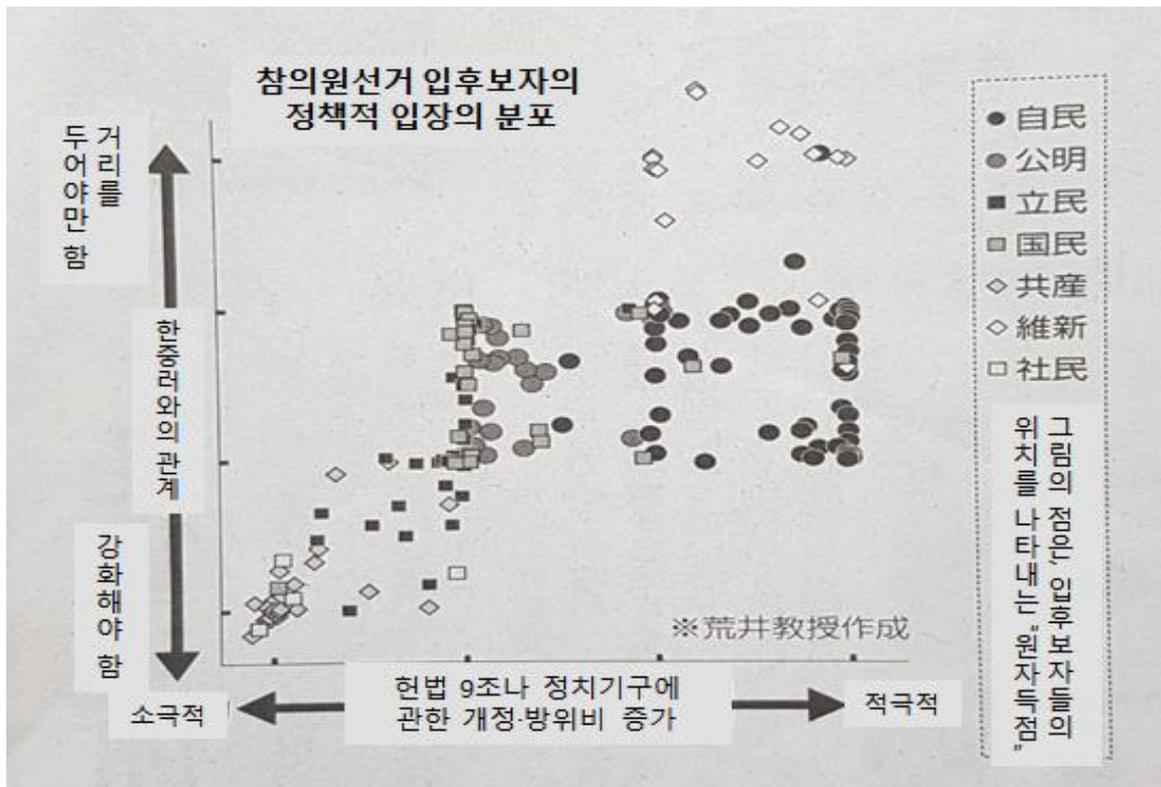


12) 출처: 讀賣新聞 2019년 7월 13일

○ 그림7,8: 참의원선거의 주요한 쟁점에 관한 트윗 및 주요 쟁점별 트윗 수<sup>13)</sup>



○ 그림9: 참의원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의 분포<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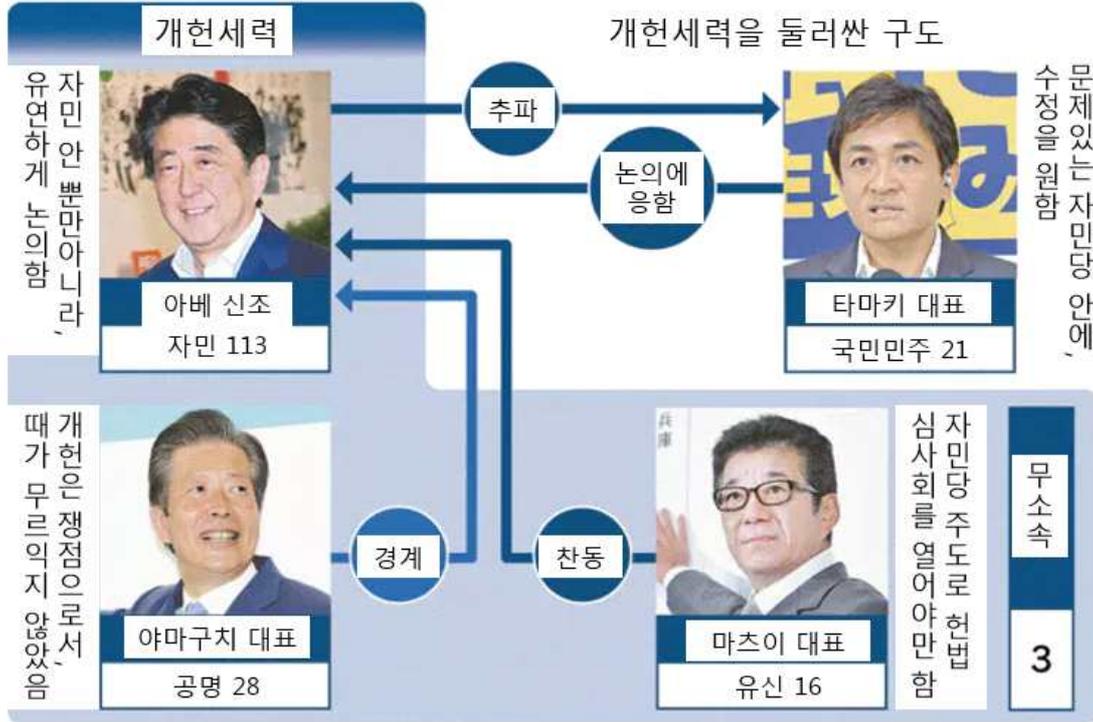


13) 출처: 讀賣新聞 2019년 7월 20일

14) 출처: 讀賣新聞 2019년 7월 13일

### 3. 헌법개정의 가능성?

○ 그림10: 개헌세력을 둘러싼 구도



(※ 숫자는 참의원의 의석 수)

- 아베 총리로서는 헌법 개정의 추진 여부와 아베 총리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였음.
- 선거 초반에는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쟁점으로 삼고자 하였음.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선거가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음.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의도와는 달리, 연금과 다른 이슈에 묻혀 헌법 개정이 국민적 쟁점으로는 부각되지 못함. 그리고 선거 결과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음. 결국, 개헌 의석의 4명이 부족한 81석에 그치고 말았음.
- 그림에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자세는 달랐음. 참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헌법 개정에는 적어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은 내려갔다"고 강조함. 국민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다고도 지적하였음.

- 반면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참의원 선거 결과를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만 한다고 받아드리는 것은 조금 억지다"라고 지적하였음. 이번 참의원 선거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신임을 얻었다는 총리의 주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9조에 자위대의 명기 등을 담은 자민당 안(案)에는 더욱더 신중한 자세를 표명하였음.
- 한국 일부 언론은 아베가 헌법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원을 끌어들이더라도 개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함. 그러나 아베가 헌법 개정 추진하기에는 많은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 우선 공명당을 찬성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됨. 이번 선거에서 개헌 추진 세력의 2/3를 넘어섰다면, 공명당도 여당으로 남기 위해서 개헌 반대라는 입장을 완화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개헌 추진 세력이 2/3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명당이 개헌에 적극적일 이유는 없음.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를 웃도는 14석을 얻었지만, 비례 표는 653만 표로 목표의 700만 표에 미치지 못함. 지난 16년 참의원 선거보다 100만 표 이상 줄어든 위기감이 강해졌음.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1년 10월까지 임. 지지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 논의와 추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공명당은 당분간 개헌 자체가 아니라, 개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심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호소함. 자민당은 공명당 없이는 여당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공명당의 반대는 아베로서는 뼈아픈 상황임.
- 둘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음. 참의원에서 4명의 개헌 찬성 세력을 확보해야 하나, 그 또한 만만치는 않음. 아베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민주당의 보수 세력과 접촉한다는 소문은 많음.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지지기반이 노동세력이기 때문에 쉽사리 자민당으로 이전할 수 없음.
- 셋째 국회 내에서 개헌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투표의 허들을 넘기는 쉽지 않음. 지금의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만약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아베는 사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힘들다고 여겨야 함.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전부 짊어지고 아베가 개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움. 지금까지 아베의 태도는 개헌보다는 권력 유지에 몰입했기 때문임.

- 앞으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추진에 열의를 가진다면, 9조를 포기하면서 헌법 개정의 길을 택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 길은 헌법 개정을 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9조의 변경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함. 아베도 이제 자신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음. 아베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개헌하는 것에 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는 아베가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함.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함. 시모무라 하쿠분 중의원 의원을 헌법추진본부의 본부장으로 그대로 둔다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베가 열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봐야 함. 시모무라 본부장은 지금까지 여당 내 개헌 추진 세력이 2/3를 넘었음에도 헌법개헌이 잘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의 인사는 헌법 개정 추진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4. 아베 총리의 지속: 레임덕의 방지

- 이번 선거의 결과로 아베의 영향력이 과연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도 예의 주시할 대목임.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자민당이 좀 더 선전하였다면, 아베는 4선도 노릴 수 있었음. 그러나 이제 그 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당(자민당 + 공명당)이 안정적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지속에는 전혀 문제없음. 앞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아베 정권이 지속될 것이며,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가능함.
- 아베 총리의 최대 무기는 선거의 얼굴임. 아베 총리는 지난 다섯 번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으며, 이번에도 선거에 강한 이미지를 보였음. 따라서 자민당 내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더라도 중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아베 파벌이 다른 파벌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아베의 지원을 얻지 않고는 총리가 되기는 쉽지 않음. 아베의 정국 운영에 따라 킹메이커로서 아베의 영향력은 오래갈 수밖에 없음. 그럼 11을 보더라도 호소다 파벌 이외에도 대부분의 파벌이 아베를 지지하고 있음.

○ 그림11: 자민당 각 파벌의 소속의원 수와 이번에 입후보한 참의원<sup>15)</sup>



## 5. 향후 정국의 동향

- 아베는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여 자신이 킹메이커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이를 위해서는 아베는 중의원 선거라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 아베는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음.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기보다는 대체로 내년 올림픽 이후 아베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함.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후에 아베가 사임하거나 중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사임할 가능성 있음. 그러면 아베가 의도하는 후계구도를 만들 수 있어 킹메이커로서 역할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임.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에는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2021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포스트 아베로서는 스가 관방장관이나, 기시다 전 외무장관이 유력하지만, 총재 선거에서는 지금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아베 총리가 있는 동안 경제문제나 국제문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베의 의도대로 후계자가 지정될 가능성 높음. 그러나 국제환경이나 경제가 악화되면 반(反)아베파의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음.

15) 출처: 朝日新聞 2019년07월23일

## 6. 한국의 대응방향

### 가.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아베가 한일관계를 개선 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없음. 아베가 한국을 한 방 먹였다고 일본 보수층은 후련해함. 따라서 아베는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출구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공세는 준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우선 8월로 예정된 화이트 국가 리스트의 삭제는 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토대로 한국을 더욱더 압박할 것으로 보임. 그 이후에는 징용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항 조치를 예고하고 있음.
- 일본에도 아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본 내 혐한 분위기에 묻혀 건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보이지 않음. 앞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해졌음.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없음. 한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은 상황임.
- 서로가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한국이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외교적 대응을 해서는 출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고는 출구전략의 환경을 만들 수 없음. 한국 정부가 일본 내의 피해 인식이 확대되거나 한국 내 피해로 인해 정부 교섭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때만을 기다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 이 될 것임.

### 나. 출구 전략: 현재 상황의 동결

- 지금의 상황에선 더이상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처방책임. 지금처럼 상대방에게만 해법을 요구해서는 출구를 찾기가 힘든 상황임.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양국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뒤라,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타협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과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짐.
- 현재는 기존 외교라인을 통해 공개협상을 하면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 서로의 승패의식이 타협을 방해함. 따라서 물밑 협

상을 통해 서로의 외교적 교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함.

- 지금이라도 한국은 특사(밀사)를 보내 더이상 악화를 시키지 않기 위한 신사협정을 일본과 만들어내야 함. 특사는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라도 만나서 수면 하의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는 국민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함. 최근 정부의 격돌은 양국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를 보여줬음. 그리고 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에 대해 서로가 해소 시켜줄 수 있는 외교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함.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 조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일본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함. 일본의 보복조치의 근거에는 한국이 1965년 기본 조약을 뒤엎는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임. 또한, 일본 역시, 한국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한·일관계는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토대로 한국은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고, 일본도 백색 국가의 삭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함. 이처럼 양국이 현상 악화를 동결할 때, 비로소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시작될 것임.